

양궁·펜싱 저력 보였지만...메달 종목 다변화 '과제'



도쿄올림픽 17일간의 열전 마무리

체조 금1·동1 선전...효자종목인 태권도·사격 '노메달' 축구·야구 부진 속 수영·육상·근대5종 등 새 희망 발견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에서 양궁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금메달 6개 가운데 4개가 양궁에 쏠려 메달 종목 다변화라는 과제를 안게됐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뒀다. 종합순위는 15위다. 애초 금메달 7개, 10위권 진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도쿄올림픽 33개 정식 종목 가운데 29개 종목에 출전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딴 종목은 8개다. 양궁(금4, 동1), 펜싱(금1, 은1, 동3), 체조(금1, 동1)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고 태권도(은1, 동2), 유도(은1, 동2), 사격(은1), 배드민턴(동1), 근대5종(동1)에서 메달을 보냈다. 안산(광주여대)을 배출한 양궁은 다시 한번 세계 최강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산이 혼성 단체전, 여자 단체·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하계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에 오르고, '소년 공사' 김제덕(경북일고)이 혼성 단체전과 남자 단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해 미래를 밝혔다. 이번 대회 12개 종목 중 남녀 플리레 단체전을 제외한 10개 종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출전권을 확보한 한국 펜싱은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를 따내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금3·은4·동1), 프랑스(금2·은2·동1)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종합 2위에 올랐던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이다. 체조에서도 신재환(제천시청)이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정상에 올라 2012년 런던 대회 도마 양학선 이후 9년 만이자 한국 체조 역대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고, 여서정(수원시청)이 도마에서



도쿄올림픽 근대5종 펜싱 랭킹라운드 경기에서 한국 김세희가 팔목에 쓴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글귀. /연합뉴스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여자 체조 선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등 깜짝 선전을 펼쳤다. 하지만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태권도와 사격 등에서 주춤했다. 태권도는 역대 최다인 6명이 출전했지만, 은메달 하나와 동메달 2개를 가져오는 데 만족해야 했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처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우리나라가 금

메달을 하나도 못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대회 2연패를 노린 야구와 여자골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런던 대회 동메달을 뛰어넘은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했던 남자축구가 8강에서 탈락하는 등 구기종목의 부진이 더해졌다. 수영, 육상, 근대5종 등에서 새 희망을 발견한 것은 수확이다.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을 한 명

의 선수가 모두 치르는 근대5종에서 우리나라는 전용태(광주시청)가 올림픽 사상 최초의 메달(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황선우(서울체고)가 남자 자유형 200m 예선에서 1분44초62의 한국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준결승에 진출한 뒤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경연 결승까지 올라 7위를 차지했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 및 세계주니어신기록을 세우고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자 아시아 선수로도 1956년 멜버른 대회 때 일본의 다니 아쓰시 이후 65년 만에 올림픽 이 종목에서 결승에 올라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이빙에서도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 3m 스프링보드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오르며 사상 첫 메달 가능성까지 부풀렸다. 육상에서는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를 넘어 새날을 열었다.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1997년 이진택이 세운 종전 한국 기록(2m34)을 24년 만에 갈아치웠고, 한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종전 8위)을 내며 '내일'을 기대하게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높이뛰기 우상혁



근대5종 정진화



다이빙 우하람

메달보다 깊은 감동 '빛나는 4위들'

육상 우상혁·다이빙 우하람 근대5종 정진화·사격 한대운 역도 이선미 등 미래 밝혀 무기력 야구 '요코하마 참사'로

수영 다이빙의 우하람(23·국민체육진흥공단)도 의미 있는 4위를 거뒀다. 우하람은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에서 4위를 차지하면서 한국 다이빙 역사상 올림픽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우하람은 "이번에는 4위 했으니 다음번에는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며 2024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다이빙 최초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드민턴에서는 감동적인 4위가 나왔다. 여자복식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동료인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에게 패해 4위를 거뒀다. 경기 후 선수들은 눈물바다를 이뤘다. 이소희-신승찬은 미안해하는 김소영-공희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동료애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다. 근대5종에서도 4위를 기록해 눈물을 보인 정진화(32·LH)도 동메달을 목에 건 전용태(26·광주

시청)를 끌어안고 축하해줬다.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4위를 차지하며 이 종목 한국 최고 기록을 쓴 한대운(33·노원구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가 조금이나마 속사권총을 알리는 데 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도쿄올림픽 4위로 파리올림픽 기대를 높인 유망주들도 쏟아졌다.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4위 남태운(23·보은군청)-권은지(19·울진군청), 역도 여자 87kg급 4위 이선미(21·강원도청), 체조 남자 기계체조 마루운동 4위 류성현(19·한국체대)은 각 종목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다. 다만 팬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준 4위도 있다. 바로 야구 대표팀이다. 경기 야구는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이번 대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4위로 마감했다. 팬들은 야구 대표팀의 성적을 '그래도 잘한 4위'가 아닌 '요코하마 참사'로 기억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딱 세걸음 남기고...서채현 막판 역전 실패

스포츠클라이밍 8위로 마감

'거미 소녀' 서채현(18·신정고·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이 막판 역전에 실패하면서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 메달을 놓쳤다. 서채현은 지난 6일 일본 도쿄의 아오미 여반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결선에서 종합 112점으로 8명 중 8위에 그쳤다. 스포츠클라이밍 콤바인은 스피드, 볼더링, 리드 등 3가지 종목의 합계 성적으로 순위를 정한다. 스포츠클라이밍 여자부 최연소 출전자인 서채현은 가장 취약한 종목인 스피드에서 최하위인 8위에 머물렀다. 볼더링에서 만회를 노렸으나 난도 높은 과제를 하나도 수행하지 못해 7위에 그쳤다. 최하위인 8위(56점)로 뒤처져 있던 서채현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인 리드에서 역전을 노렸다. 서채현은 예선에서 리드 1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리드에 나섰다. 앞서 7명의 리드 결과로 서채현의 중간 순위는 4위로 상승해 있었다. 예선에서 리드 1위를 한 서채현은 가장 마지막 순서로 나섰다. 앞서 경기한 선수들의 리드 경기 결과로 서채현은 중간 순위 4위로 올라간 상태였다. 이전까지 리드 1위 안야 가르브레트(슬로베니아)은 37+를 기록했다.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볼더링 결선 경기에서 암벽을 오르고 있는 서채현. /연합뉴스

서채현이 38개 이상에 성공하면 리드 1위를 차지, 3위로 대역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채현은 거침없이 올라갔다. 35+까지 기록했지만, 36번째 홀드를 향해 손을 뻗을 때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서채현은 리드를 2위로 마쳤다. 최종 순위는 다시 8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고진영·김세영 공동 9위...여자골프 메달 불발

최강 전력을 자랑한 한국 여자골프 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금메달은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가 차지했다. 공동 2위로 마쳐 연장전을 벌인 이나미 모네(일본)와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각각 은·동메달을 가져갔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세계 랭킹 2위 고진영(26)과 랭킹 4위 김세영(28)이 공동 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고진영과 김세영은 7일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고

에시의 가스미가사키 컨트리클럽(파71·6648야드)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골프 여자부 최종 4라운드에서 나란히 3언더파 68타를 쳤다. 이날 동반 플레이를 펼친 고진영과 김세영은 최종합계도 똑같이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공동 9위를 차지했다. 세계 랭킹 6위 김효주(26)는 이날 4타를 줄여내 공동 15위(최종합계 9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세계 랭킹 3위이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33)는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로 공동 2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모가디슈
2관	더수어사이드스퀘드
3관	블랙 위도우, 더 그레이트 스코
4관	보스 베이비 2
5관	모가디슈
6관	모가디슈
9관	더수어사이드스퀘드

7관 씨네캐슬: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신공룡 정글 크루즈 이스케이프 룸 2: 노웨이아웃

8관 씨네캐슬: 방법: 재차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8. 21.(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2021. 08. 25.(수)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